지역 소식통

정읍, 정읍사랑상품권 2024년 600억원 발행

정읍시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정읍사랑상품권을 2024년도에 지난해 발행액과 동일한 600억원을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내년 1월 1일 자정부터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연 600만원이며, 최대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누적 가입자가 5만여 명에 달하고 가맹점이 5000개소를 넘어서는 등 지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기 판매를 대비해 내년에는 1분기 200억, 2~3분기 150억, 4분기 100억으로 발행액을 나눠 판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카드는 농협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전북은행에서도 발급과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이전과 같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충전방식으로 구매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 종료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등 코로나19 안정화 지속 유지에 따른 정부 지침에 의거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고창군보건소에서는 2020년 2월 읍압텐트형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해 같은해 6월 국비 1억을 지원받아 냉·난방이 겸비된 음압컨테이너로 교체 설치한 후 지금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4년여간 군민,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에게 약 17만 건의 PCR검사를 무료로 시행했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12월31일부로 종료되지만 관내 16개소 호흡기 진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고향사랑부금 5억 돌파

시행 초부터 재외군민, 지역학교 동문들 참여 이어져 기부자 감사 이벤트 및 고창 답례품 홍보꾸러미 제공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난 21일 기준 기부금 5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고창군은 시행 초부터 재외군민과 지역학교 동문들로부터의 참여가 이어져 왔다.

특히 12월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제 관심이 급상승하며 기부자와 액수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제혜택과 엄선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통해 기부자들의 고창 발전 염원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연말을 맞아 기부자 감사 이벤트 및 5억원 달성시 기부자 이벤트를 통해 고창 답례품 홍보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기부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답례품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거나, 가까운 농협 창구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1일 대학생 전 학년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안, 전 학년 반값등록금 실현

근농인재육성재단, 전국 최초 대학생 등 2182명 장학금 20억원 지급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은 지난 21일 대학생 전 학년 반값등록금을 지원해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1~2학기 장학생은 반값등록금 1,946명 등 4개분야 2,182명이 선발되었으며, 작년 12억원 대비 올해는 약 2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2017년 대학교 1학년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2018, 2019년에는 1~2학년, 2020년에는 1~3학년, 2021년에는 1~4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반값등록금을 확대 지원했으며, 2022년은 1~3학년 1학기, 4~6학년 2학기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왔고, 2023년 드디어 대학교 전학년 1~2학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지급을 실현했다. 장학금은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군민과 향우들의 매달 정기적인 자동이체 후원과 일시기탁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장학금을 받았던 분들이 "장학금이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 수행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수혜 당시 느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진 양성을 위해 후원금을 쾌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금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동력 삼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고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부안군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마음껏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으며, 지역 인재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오늘날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쾌적한 서비스 제공… 정읍 수성 행정복지센터 '새단장'

신청사 개소식 개최

정읍시 수성동(동장 김행숙)은 22일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주민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설 관람, 경과보고, 기탁식, 축사, 축하공연,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했다.

1만 6400여명, 8400여세대 주민들의 민원 업무와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존 임시청사는 좁은 시설과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꾸준히 신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신청사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공기업 제안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9339㎡에 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층에는 수성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상가 4개소, 3층에는 회의실과 다목적 컨벤셜 홀, 4~18층은 행복주택 98세대가 마련됐다.

김행숙 동장은 "신청사 이전을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성동은 지난 22일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샘고을시장 특화거리 조성 완료

정읍시가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샘고을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고자 추진했다.

먼저 샘고을정다운상권 내 위치한 정읍 최대규모의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 제1문부터 시장 내 오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 위치한 39점포를 대상으로 간판과 조명 등 점포 환경 개선을 했다. 또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고객선 정비도 완료했다.

상인들은 상권활성화사업에 동참해 고객선 정비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정이 넘치는 활기찬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통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샘고을시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상권활성화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상권 경쟁력 확보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정읍샘고을정다운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지급 완료

부안군은 2023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부안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총 1,173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원자 중 휴·폐업자, 제외업종(유흥업 등),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초과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군은 접수된 1,173건 중 1,097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액 4억251만 9,270원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지원 대상자 중 최대 1백만원을 모두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총 76건이라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연이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며,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도모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